

<특집: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Ⅱ>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이 상 철*

I. 제주 연구

1. 연구 의의

제주도의 지역연구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서 있다. 연구의 출발에서 남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영역이 넓고 양도 많다. 이에 비해 타 지역은 연구단위로서의 독자성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적지 않게 겪는다. 특히 서울 주변 지역은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한 채 그 성격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도 단위가 아니며 역사도 짧은 부천이나 성남은 더욱 그러하다.

지역연구단위로서 제주도는 강한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 연구가 내용과 방법에서 뒷받침되면 제주 연구는 제주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연구 일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제주 연구의 앞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타 지역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연구 방법

연구단위로서 제주를 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행정단위로서의 제주도(濟州道)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역 행정과 관련해서는 유용성이 있으나 역사가 짧고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성이 적어 학문적 선호도가 낮다.

둘째, 제주적인 것의 특징을 살려 제주를 개념화한다는 뜻에서 제주도(濟州島)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전경수 1997: 19-20). 이 방법에 의하면 연구 대상이 지역의 공간과 역사·사회·문화의 총체가 된다. 제주의 특성을 포착하기에 앞의 방법보다 낫다. 그러나 지역연구가 개별 분과학문 연구의 '물리적' 집합에 지나지 않고, 제주 연구가 지역연구의 하나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전통적인 분과학문들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화학적' 통합을 하는 제주학(濟州學)을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를 보고 이해하는 준거틀로서 제주학은 독립적인 학문이 된다. 제주의 특수성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제주의 특성 연구가 제주사회의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와 인간 사회 일반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전경수 1997; 현길언 1997: 35-36). 그러나 우리의 학문적 역량과 발전이 아직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로는 제주학은 지향점이지 도달한 곳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濟州島) 연구를 기초로 제주학 연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뜻에서 도(島)나 학(學)을 뺀 '제주 연구'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논문 하나 하나를 검토한 후 전체를 다시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제대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사람별, 시기별, 분야별로 하나씩 검토한 경우는 몇 번 있었다.¹⁾ 그러나 그 후 연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공별로 한 명의 연구자가 한 편

1) 연구논문을 한 편씩 검토한 글로서는 김영돈 외(1985), 신행철(1987, 1993)을 들 수 있다. 이 글도 이들이 검토한 것에 크게 힘입었다.

씩 검토한 후 종합하고, 전공별로 종합한 것을 토대로 다시 전체 토론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혼자서 일일이 검토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필자의 학문관에 입각해서 전체만 개관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변수

연구와 연관된 변수는 연구의 객체인 연구 대상, 주체인 연구 인력, 환경인 연구 여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으로서 제주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제주는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라 할 만하다(장주근 1984: 7-9). 제주는 섬이어서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지리 및 인구의 측면에서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동식물 자료가 풍부하다. 한국문화의 옛날 모습과 제주도 고유의 특징-지방형-이 많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기에도 유리하다. 특히 종합적,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에 유리하고 그 필요성도 높다.

둘째, 화산섬이라는 제주의 자연적 조건과 중앙으로부터 격리된 곳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제주도의 특수성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생각은 육지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 자연적 조건은 도서성과 저생산성 두 특성으로 귀결되어 왔다. 사회적 조건은 변방 또는 주변의 특성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저생산성의 의미는 한국사회와 제주사회가 급속히 산업화·자본주의화 되면서, 즉 사회적 맥락이 달라지면서 변화하고 있다.²⁾ 나머지 도서성과 주변성은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

2) 사회구조의 변화가 자연적 조건의 의미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좋고 이상철(1997:

서 앞으로도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발에 따른 사회변동에 의해 제주 고유의 특성이 많이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위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타 지역보다 특수성이 강할 것이다.

제주 연구의 대상은 크게 지역-공간-과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간으로서의 제주지역은 행정단위인 도(道)가 아니라 섬인 도(島)가 된다. 섬으로서의 도는 자연적·지리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으로서의 제주인은 ①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 주거지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 ② 제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③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④ 제주에서 태어나지도 활동하지도 않지만 재일(在日) 제주동포처럼 연고를 둔 사람 등이 된다. 연구 대상으로서 사람의 개념에는 역사, 사회문화와 정체성 등이 포함된다(안두순 1994; 조성윤 1994).

공간과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이와 연관된 제주의 독자성과 특성을 탐구하여 특수성을 밝혀야 한다. 이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기초가 되어 타 지역이나 한국사회의 성격 연구에 통합이 되어 보편성을 가지면 제주 연구는 학으로서 성립이 가능하다. 그럴 때 제주 연구의 특수성이 타 지역 연구와 한국사회 연구의 일반성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연구 인력

제주사회의 연구자들은 출생 및 활동 연대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연구의 기초를 놓은 자들은 1세대, 이들에 영향받아 연구를 확대시킨 자들은 2세대라 할 수 있다. 1세대는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제주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 토대를 구축한 선구자들이라고 하겠다. 2세대는 현재 제주 연구의 주축을 이루는 층이다. 최근에

연구를 시작한 자들은 3세대로 부를 수 있다.³⁾ 이와 같이 학문 후속세대의 진입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연구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에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제주사회에도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연구의 질도 더욱 심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사회를 연구하는 조직도 크게 늘어났다. 도내의 각종 대학교, 대학의 학과, 대학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 기타 연구단체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은 미흡하다. 각종 연구 조직들은 대부분 대표자 1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자에게 과부하가 되고 있는 것은 조직의 체계화·구조화가 그만큼 미흡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 조직간 인력이 겹치고, 조직 규모도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 조직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장기적이고 참된 발전 전망에 의한 것보다 특정 학과나 개별 연구자의 관심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연구 여건

연구의 물질(物的) 조건은 대단히 미비하다. 대표적으로 연구비를 들 수

-
- 3) 연구자를 세대로 구분한 것은 필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지만 일반화시키기에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1세대는 1960년대 내지 1970년대에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주연구의 토대를 닦은 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학회를 결성하고 기반을 잡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연구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세대는 1세대의 제자 뿔로서 1980년대에 연구를 시작하여 연구 영역과 연구 시각을 확대한 연배이다. 3세대는 이제 연구자로서 입문하여 제주 연구를 심화하는 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하와 해방 직후에 개별적으로 연구를 남긴 자들을 0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 구분은 한국사회 일반의 연구자 세대 구분에 비해 1세대씩 늦은 셈이다. 그 점은 지역연구가 한국사회 일반의 연구에 비해 그만큼 출발이 늦은 것을 뜻한다.

있다. 연구비를 수혜한 과제, 건수, 규모와 연구비 지원기관 등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예를 들어 사회조사연구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비율은 1970년대 50.0%, 1980년대 45.7%, 1990년대 40.7%이다(김석준·이상철 1998: 42). 문헌연구 등과는 달리 사회조사연구는 연구 의욕만으로는 연구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기본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주체도 대부분 연구비 지원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지역에서 발주하는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와 개발에 관한 주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응용의 성격이 강하고 기초학문을 위한 것은 적다. 기초학문은 전국단위에서 공모하는 학술연구비에 주로 의지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연구비의 증대가 필요하다.

학술적 연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학술연구는 비생산적이거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것은 많은 경우 그 동안의 연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불충실한 데에도 기인한다.

한국사회의 전반적 경향이지만 4·3을 겪은 제주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연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용된 이념적·사상적 스펙트럼이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에서 특히 중요한 4·3에 관한 논의와 객관적 연구가 쉽게 곤경에 빠져 진척을 보지 못하곤 한다.

이러한 연구비, 연구 주제,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데올로기적 편향 등 연구를 제약하는 여러 조건들은 연구자들이 앞장서서 타개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III. 연구 성과

제주 연구에서 1970년대까지는 연구 1세대의 선구적 업적이 기초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구자와 연구 조직의 확충에 의해 연구가 더

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성과는 연구의 영역, 시각, 방향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연구 영역

연구 초기에는 인류·민속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제주도의 본격적인 개발 이후에는 개발, 관광, 행정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지역사회, 전통적 특성, 개발계획, 관광산업, 지역행정 등 몇몇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연구 여건과 연구 인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960년대이래 한국사회가 개발 드라이브에 휩쓸리면서 제주도에서도 개발이 지상 명제가 되었다. 연구도 개발에 관한 것이 자연히 중심이 되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학 내에서 개설되는 학과의 성격과 연구자의 성향에 많이 의존하였다.

주로 연구되어온 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산업·경제 분야에서 경제학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특히 농수산업(감귤), 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경영학은 유통과 소비 중심이었다.

둘째, 사회·인류 분야에서 사회학은 농촌·도시, 문화·의식, 일탈, 사회사, 사회변동이 많이 다루어졌다. 인류·민속학은 가족·친족, 여성·해녀, 농촌, 문화(전통문화, 정체성, 의례)의 연구가 많았다.

셋째, 법정 분야에서 정치·행정학은 지역행정, 지방정치, 지방자치, 4·3, 안보·통일 위주였다. 법학은 입어 관행, 공동체와 법규범이 선호되는 주제였다.

2. 연구 시각

지역연구로서 제주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지역연구의 중요성과 제주 연구의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그전까지 서울-중앙-만 바라다보던 학문 풍토

4) 자세한 내용은 앞의 각주 1)에서 언급한 글들을 참조할 것.

에 새로운 자세를 선보인 것이었다. 타 지역보다 먼저 지역연구를 시작한 것은 동시에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제주 연구에는 초기부터 종합적 접근과 학제적 연구가 많았다.⁵⁾

제주를 보는 방법은 연구자의 출신 지역과 전공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제주도를 '안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제주 출신이 선호한다. 제주도 '밖에서' 제주에 접근하는 방법은 육지 출신이 많이 쓰고 있다. 민속학은 전자의 입장이 강하고, 사회학은 제주도를 육지와 비교해서 보는 후자의 입장이 강하다(유철인 1996: 16-25). 안에서의 접근은 제주의 개별성·고유성, 내적 동력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 탐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바깥에서의 접근은 제주의 일반성, 외적 규정성-주로 한국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거시 비교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두 접근방법은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차지하기 보다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이창기 1992).

그 동안 제주 연구는 주류 사회과학 입장에서의 보수적 접근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이념적·사상적 스펙트럼과 연구자의 성향 탓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 소개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 경향도 점증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새로 학문세계에 진입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3. 연구 방향

아직까지는 연구가 일천하여 현상기술적인 연구가 많다. 앞으로 연구 성과가 누적되면 분석적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 영역에 따라 특히 기초 또는 응용 연구에 기여하는 바도 차이가 난다. 인류·민속학은 상대적으로 기초 연구와 제주도의 과거에서부터 지속된 특성 탐구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학, 관광학, 행정학 등은 응용 연

5) 연구자 0세대에 해당하는 석주명의 연구들은 종합적 접근의 예가 되고, 1959년에 이루어진 '제주도 종합학술조사'(한상복 1984)는 학제적 연구의 대표가 될 수 있다.

구와 제주도 현재의 지역개발 등의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IV. 연구 과제

제주 연구의 성과가 연구 인력의 확충에 의해 크게 늘어났지만 절대적 수준에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부족한 점은 앞에서 다룬 연구 성과의 반면(反面)이 된다.

1. 연구 영역

지금까지의 제주 연구는 그 영역이 편중되어 있다. 앞으로는 제주사회의 모든 부문을 연구 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한 정치, 법, 특히 지리, 심리, 복지, 환경, 언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주제도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 관광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관광의 경우 관광산업·관광개발 등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광이 제주도민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과 도민의 상호작용 등 모든 측면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한다.⁶⁾

2. 연구 시각

이제 제주 연구에서는 개별 학문들의 평면적 나열과 집합을 넘어서 연구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학제적 연구가 요망된다. '안'과 '밖' 접근방법의 종합과 지양은 이를 위한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성과가 쌓이게 되면

6) 일상생활 및 관광과 관련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한 좋은 사례로서는 최근에 출간된 권귀숙(1998)의 *신혼여행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통합과학으로서의 제주학을 정립하는 길은 그만큼 더 단축된다.

연구 시각에서 특히 부족한 부분은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이다. 비판적 접근은 지역연구가 제주보다 일천한 타 지역에 비해서도 모자란다. 타 지역은 지역연구의 출발이 늦은 만큼 학문 후속세대들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인 듯하다. 제주를 연구하는 연구자 수의 증대와 연구 2, 3세대의 분발이 필요하다.

3. 연구 방향

제주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론적 성격이 부족하다. 제주 연구를 통해 일반이론까지 구성해 보려는 의욕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기초 연구를 보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는 응용 분야에 치우친 바, 기초와 응용 연구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기초와 응용을 통합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제주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변동의 관점이다. 즉,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전체 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기초해서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제주사회와 이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된 경우는 없다고 본다. 학계에서라도 먼저 이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것은 장기적이면서 광범위한 작업이므로 어느 한 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제주학회를 위시한 연구단체들,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급 학교들, 제주도(濟州道)를 위주로 한 각급 행정기관들, 기타 각종 민간기구 모두가 된다. 작업의 시작은 어차피 이들 중 어느 한 기구가 주도하여야 한다. 주도자는 연구 조직이나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이 기관은 전체의 작업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결-네트워크(network)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화할 자료는 학술연구, 일반연구, 일차자료, 사실

(fact) 등이 된다. 그렇게 하면 연구가 용이해지고,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자료와 사실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다. 자료는 연구나 교육 외에도 각종 기획의 토대나 관광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⁷⁾

둘째,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은 전국 각 지역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회·학회들간의 교류 또는 의견교환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가칭 '한국지역연구단체협의회' 같은 모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임을 제주에서 가지면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비교연구가 안팎 접근의 지양과 같이 이루어지면 제주의 성격은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특수성만을 강조하거나, 한국사회의 기본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일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지역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명확히 하면서, 보편성 속의 특수성과 특수성을 통한 보편성을 상호 규정적 관점에서 추구할 때, 제주 연구는 제주사회의 성격·특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성격 연구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국사회가 제주에 가하는 규정성과 제주사회 자체의 역동성, 다시 말하면 외생적 측면과 내생적 측면의 동시적 탐구가 요구된다.

4. 특별 연구 주제

지역연구는 해당 지역사회의 모든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경우 특히 종합적, 학제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는 개발, 관광, 환경이다. 이 셋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다. 그 외에 4:3, 재일 제주동포-공간과 사람, 즉 삶의 공동체로서의 동포사회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7) 그런 점에서 제주학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왕에 조사된 연구 문헌목록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과 운동이 각종 기관에 확산되면서 의외로 쉽게 전체 작업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V. 전 망

지역연구 중 제주 연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 차원에서는 아직 연구 주제, 연구의 양, 접근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연구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제주에 관한 연구 변수들 중에서 연구 대상은 양호한 셈이나 연구 인력과 연구 여건은 불량한 편이다. 그러나 인력과 여건은 현재 개선 중에 있으며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대상으로서 가진 장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주 연구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그 길은 앞에서 논한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연구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에 있다.

참 고 문 헌

권귀숙

1998 『신혼 여행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김석준·이상철

1998 “제주도 사회조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사회발전연구』 14,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 1998, pp. 28-55에 재수록).

김영돈 외

1985 “해방후 제주연구개관(III): 사회과학분야”, 『탐라문화』 4: 271-427, 탐라문화연구소.

신행철

1987 “제주사회연구의 전개와 과제”, 『제주도연구』 4: 47-63, 제주도연구회.

1993 “학술: 사회과학”, 『제주도지』 3: 400-419, 제주도.

안두순

1994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서울학 연구 서설』, 안두순 편저, pp. 3-2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유철인

1996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13, 제주학회(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pp. 13-27에 재수록).

이상철

1997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 『탐라문화』 17: 193-212, 탐라문화연구소.

이창기

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제주도연구』 9(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 1995, pp. 398-416에 재수록).

장주근

1984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제주도”, 『제주도연구』 1: 7-18, 제주도

연구회.

전경수

1997 “제주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연구』 14: 19-33, 제주학회.

조성윤

1994 “서울학과 사회학: 서울학 정립을 위한 검토”, 『서울학 연구 서설』, 안두순 편저, pp. 107-132, 서울학연구소.

한상복

1984 “제주도 종합학술조사(1959) 개요”, 『제주도연구』 1: 293-322, 제주도 연구회.

현길언

1997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 35-51, 제주학회.